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9. 3. 5.(화), 18시 총 2매(본문 2)	
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	담당자	·과장 강주엽, 서기관 나민희, 사무관 송혜연 ·☎ (044)201-3792, 3790	
보도일시		2019년 3월 6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6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교통부장관, 건설현장·교통시설·운행차량 등 미세먼지 관리 강화 철저 지시

- 모든 산하·소속기관에 긴급 지시 발령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, 국민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,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, 관용차·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.
 - 이는 3.5(화) 국무회의시,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.
- 우선, 지하철 역사 및 차량, 버스 터미널·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,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하여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.
- 특히,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.
 - 노후 경유 화물차, 버스,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,

-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소속기관,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,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.
- 추가적으로 관용차량 운행 제한,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,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 수범할 것을 주문했다.
- 뿐만 아니라, 공사장·도로·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,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 시설 설치,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, 인근도로 청소 강화,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.
- 특히, 우리부 또는 소속·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.
- 또한,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을 대비해 금번의 긴급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소속 및 산하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하고,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다.
-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“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송혜연 사무관(☎ 044-201-379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